

2025년 APEC 정상회의 제9차 준비위원회 개최

- 정상회의 공식 만찬은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, 글로벌 CEO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는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행사장에서 개최 결정 -

- 「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준비위원회」 제9차 회의가 개최되어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을 국립경주박물관 중정 내 신축 건축물에서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하기로 9.19.(금) 의결하였다.
- 금번 APEC 정상회의는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, 국내외 각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예정임에 따라, 준비위원회는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공식 만찬 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.
- 이는 제5차 준비위원회(1.22)에서 정상 만찬 장소를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호텔 연회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기로 한 데 따라, 관계기관 간 후속논의와 금번 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.
- APEC 만찬장 장소 변경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CEO 씨밋과 연계하여 기업인들과 정상 등의 네트워킹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. 국내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퓨처테크 포럼 등 다수의 경제 행사를 APEC 주간(10.27~11.1)에 국립경주박물관 중정 내 신축 행사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.
- 또한 APEC 주간 내내 국립경주박물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주가 우리 문화의 매력과 천년 고도의 명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‘열린 APEC’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

-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재도약하는 기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성공적 행사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팀장	정재상 (02-2100-2109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주 (044-200-2135)
담당 부서 <공동>	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	책임자	부장	임경훈 (02-2225-5902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준 (02-2225-5926)

